

<동정자료>

최정호 차관, 전세버스 업체방문 운행실태 현장점검

운전자 근무행태, 근로여건, 차량정비실태 점검

-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.23(토),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,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세버스 업체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.

* ○○관광버스(주) : 경기 분당 소재, 전세버스 80여대 보유

- 이날 최정호 차관은 안전관리책임자, 버스운전자로부터 운행 시간·휴게시간 등 근로여건 및 버스 정비현황 등 현장안전 관리실태를 청취하는 한편, 운전자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.
- 아울러, 다중이 이용하는 전세버스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,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버스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16. 7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 1

2차관님 현장 방문 사진 자료



간담회 1(전세버스 운전자)



간담회 2(전세버스 사업자)



정비현장 1



정비현장 2



차량관리 1



차량관리 2